

안익태 VI

김보국*

1941년 10월 10일의 지휘 무대와 그 평가

초록 본고에서는 안익태가 외트뵈쉬 기숙학교를 떠난 후인 1940년 12월부터 부다페스트의 비거도(Vigadó)에서 음악회가 있었던 1941년 10월 10일까지의 그의 행적과 그의 지휘 무대에 대한 헝가리의 평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달리, 당시 기록된 공연 프로그램 등을 근거로 하여 안익태와 에하라 고이치의 조우는 1940년 11월, 루마니아에서 일본 측이 주최한 행사에서 이루어졌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에하라는 자신의 글에서 안익태가 유럽에 머물며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그를 찾았다고 하였는데, 그때는 안익태가 외트뵈쉬 기숙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시기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안익태가 에하라의 저택에 머물렀던 시점과 지휘자로서 조명 받기 시작하는 시점이 겹쳐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1941년 10월 10일, 안익태는 이전의 지휘 무대와 다른 형식과 내용으로 보다 '체대로 된' 지휘 무대에 서게 된다. 이 음악회를 시작으로 그의 활동은 독일에서 본격화되며, 이후 약 2년 동안 자신의 경력에 있어서 최고의 시기를 맞게 된다. 본고에서는 헝가리 자료들을 통해 이 10월 10일의 음악회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았다. 이 음악회와 관련하여 당시 일부 신문과 음악 전문 저널에 실린 비평을 중심으로 그에 지휘에 대한 음악적 평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주제어 안익태, 리스트 음악원, 에하라 고이치, 에텐라쿠, 오타카 히사타다, 고노에 히데미로, 황기 2600주년 기념 봉축곡, 베레쉬 산도르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수석연구원
헝가리 국립 아카이브 동아시아연구소 연구소장

1. 들어가는 말

안익태에 관련한 많은 논의들이 주로 ‘애국’과 ‘친일’의 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김경래에 의해 1966년에 처음으로 출간된 『코리아 幻想曲: 安益泰의 榮光과 슬픔』에서 그는 지고한 애국적 음악가로 그려졌다. 안익태의 전기에 해당하는 이 도서는 부실한 자료 검증과 모순된 내용 등으로 많은 비판을 받으며, 2006년까지 다섯 번이나 개정되어 각각 다른 서명(書名)으로 출판되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송병욱과 이경분은 주로 새롭게 발굴한 독일 출처의 자료들을 중심으로 안익태의 친일 행적을 알린 바 있다. 또한 최근에 프랑크 호프만(Frank Hoffman)은 새로 발굴한 자료를 근거로 안익태가 ‘스페셜 에이전트’였을 가능성에 대해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논의에서 안익태는 ‘천재적인 음악가’, 또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오랜 해외 활동을 통해 최소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재능 있는 음악가’로서 ‘애국’과 ‘친일’이라는 잣대에 의해 옹호와 비판을 받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의 음악에 대한 해석이나 그의 음악 세계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부족하다. 1998년이 되어서야 학술적으로 그의 음악을 최초로 다룬 『안익태』가 전정임에 의해 단행본으로 발행되었다. 전정임은 이후 관련 후속 논문들을 발표한 바 있으며, 허영한 역시 1990년대 말부터 다수의 논문을 통해서 주로 미국 등에 산재해 있는 안익태 관련 자료를 소개하고, 음악적인 해석을 곁들인 바 있다. 이들 외에도 노동은, 이경분, 송병욱과 최근 김정희 등도 논문과 기사 등을 통해 안익태의 작품들에 대해 음악적인 분석을 시도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작품에 대한 음악적 비평, 혹은 지휘자로서 그의 역량에 대한 논의는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안익태가 활동했던 당시 그의 음악에 관한 자료들은 신문이나 잡지, 혹은 공연 프로그램에 등장한 기사들과 정보가 대부분이며, 음악 전문

저널이나 음악 전공자들의 비평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¹ 본고에서는 헝가리 음악계에서 당시 그의 역량에 대해 어떤 평가를 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941년 10월 10일, 그는 부다페스트에서 지휘를 하게 되는데, 헝가리의 음악 전문 저널은 그 음악회에 관하여 자세하게 다룬 바 있다. 이는 헝가리 출처의 자료들 중 그의 음악적 재능에 대한 당시 전문가의 유일한 비평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적인 목적은 차치하고, 그의 음악회가 헝가리에서 전문 음악인들의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당시 촉망받던 헝가리의 차세대 작곡가의 작품을 그가 지휘하였기 때문이다.

1941년 10월의 이 음악회를 다루기 전에, 1940년 12월, 외트비쉬 기숙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안익태가 어떻게 화려하게 다시 헝가리의 무대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는지 그의 행적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고자 한다.

2. 안익태의 헝가리 기숙학교 퇴교 이유와 그 과정

안익태는 1938-39학년도(1938년 9월에 학년 시작)부터 1940-41학년도까지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리스트 페렌츠 음악예술대학교(Liszt Ferenc Zeneművészeti Főiskola, 이하 리스트 음악원)에 등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당시 여느 학생들과는 다르게 수강과목 정보가 담긴 목록의 거의 대부분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일부 학사 연도에는 자신이 직접 등록 기재를 하지 않았으며, 입학 당시 이미 “교육을 받은 음악가”(képzett zenész)²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일반적인 학생이 아니라 ‘재교육’, 또는 자신의 기량을 심화

1 안익태는 독일에서도 수 년간 지휘자로 활동하였으나, 음악을 전공하던 현지 비평가들이 그의 음악적 역량을 평가한 자료들은 아직 많이 소개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자료들 중 하나는 1942년에 쿠르트 빌헬름(Kurt Wilhelm)이 평가한 내용인데, 그는 지휘자로서 안익태의 역량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상세한 내용은 이경분(2006), 「안익태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낭만음악』 19(1), 낭만음악사, pp. 44-45 참조.

2 김보국(2020a), 「안익태 I」, 『한국학연구』 72, 한국학연구소, pp. 81-82.

시키기 위한 ‘청강생’으로 재학했다고 볼 수 있다.³ 반면 그는 ‘바로 외트뵈쉬 요제프 기숙학교’(Báró Eötvös József-Collegium, 이하 외트뵈쉬 기숙학교)에 거주하며 숙식을 해결하였는데, 1940년 12월에 이 기숙학교를 떠나게 된다.⁴

외트뵈쉬 기숙학교의 문서보관소에 남아 있는 안익태 관련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안익태는 외트뵈쉬 기숙학교 측과 많은 갈등이 있었으며, 헝가리 종교 및 대중교육성(Vallási-és Közoktatási Minisztérium, 이하 헝가리 교육성)이 승인한 기숙학교 사용에 대해 1년 동안의 장학금 제공 기간이 끝난 이후, 안익태와 외트뵈쉬 기숙학교 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외트뵈쉬 기숙학교 측이 제기한 문제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1. 안익태는 ‘교환 장학생’(csereösztöndíjas)에 해당하지 않지만 기숙학교 사용 비용을 교환 장학생이 지불하는 수준으로 해 줄 것을 요구,⁵ 2. 안익태는 기숙학교와의 문제를 기숙학교와 해결하지 않고 항상 상급 기관인 헝가리 교육성을 찾아감, 3. 자신이 머물지 않았을 때의 비용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고 이를 흥정의 대상으로 삼으며, 기숙학교를 시내의 숙박시설로 여김, 4. 동료들과 전혀 어울리지 못함, 5. 이태리,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 불가리아를 다니며 경찰

3 헝가리 교육성 자료에 따르면, 정규학생들과 다르게 그의 입학 관련 자료는 없으며, 일부 자료에서 ‘외국 교환학생’(külföldi csereövendék)으로 기재되어 있다(MNL, VKM, 1937~1941, 44-2, 3. poz., 883 doboz, 문서번호: 36.531). 헝가리 교육성의 또 다른 자료에 따르면, 1939년 당시 외트뵈쉬 기숙학교에 거주하던 외국인인 선생(tanár), 교환 장학생(csereösztöndíjas), 게스트(vendég)로 분류되었는데, 안익태는 ‘게스트’ 자격으로 머물고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MNL, VKM, 1937-1941, 44-2, 3. poz., 883 doboz, 문서번호: 34.937 참조. 한편, 외트뵈쉬 기숙학교 자료는 당시 안익태가 리스트 음악원이 아닌, 부다페스트의 호프 페렌츠 동아시아 예술 박물관(Hoff Ferenc Keletázsiai Művészeti Múzeum)에서 학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김보국(2020a), p. 72 참조. 김경래는 안익태가 1937년 2월에 ‘특별 연구생’으로 리스트 음악원에 입학하였다고 한다[김경래(2002). 『안익태의 영광과 슬픔, 청개구리들의 만찬』, 일곡문화재단, pp. 109-110].

4 안익태의 퇴소 날짜가 기재된 외트뵈쉬 기숙학교의 신상명세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보국(2020a), pp. 96-97 참조.

5 본고 각주 3 참조.

에 외국 방문 신고를 하지 않음.⁶ 이러한 갈등 끝에 안익태는 결국 1940년 11월 18일에 그동안 지불하지 않았던 모든 비용들을 지불하고,⁷ 외트비쉬 기숙학교를 떠나게 된다.

반면, 그의 연주 및 지휘 기록으로 본다면, 비록 헝가리-니폰 협회(Magyar-Nippon társaság, 이하 형일회)나 헝가리 주재 일본 공사관의 후원에 힘입었다고 하더라도, 이 시기는 헝가리에서 그의 음악적 활동이 왕성해지던 시기였다. 1938년 9월에 리스트 음악원에 등록한 후 1939년 5월 17일에 헝가리에서 그의 첫 첼로 연주회가 있었고, 이로부터 다시 약 10개월 후인 1940년 3월부터는 지속적으로 그가 음악 관련 활동을 한 기록이 남아 있다.⁸ 심지어 1940년 9월 4일 음악회의 경우, 헝가리의 일간지 『넴제티 우이샤』(Nemzeti Újság) 1면에 사진이 실릴 정도로 그의 활동이 헝가리 내에서 알려지던 시기였다. 헝가리뿐만 아니라, 동년 4월부터 5월까지의 로마와 베오그라드에서, 10월과 11월에는 각각 소피아와 부쿠레슈티에서도 지휘 무대를 가졌다.⁹ 1940-41학년도에는 당시 세계적으로 손꼽히던 음악원 중 하나였던 리스트 음악원에 아직 등록이 되어 있던 상황이었다.¹⁰ 즉, 안익태는 그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알려지던 시기에 ‘쫓겨나다시피’ 기숙학교를 떠난 것이다. 이는 몇 가지 정황을 시사하는데, 우선 안익태의 음악적 활동이 대내·외적으로 활발했던 것 같으나, 이는 거의 대부분이 형일회와 일본 공사관의 후원에 힘입은 것일 뿐, 헝가리 현지에서는 실질적인 인정을

6 안익태와 외트비쉬 기숙학교 및 헝가리 교육성 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김보국, 2020a, pp. 94-97 참조.

7 Mednyánszky Dénes Könyvtár és Levéltár, 1/c Külföldi ösztöndíjas hallgatók nyilvántartása: 34. doboz, 50. dosszié. p. 9. 외트비쉬 기숙학교(Collegium)의 내부 규정에 따라 교장 Dr. habil Horváth László의 승인을 득하였음을 명시함(이하 생략).

8 당시 그의 음악 관련 활동과 형일회 및 헝가리 주재 일본 공사관의 후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보국(2021), 「안익태 III」, 『인문논총』 78(1), 인문학연구원, pp. 267-287 참조.

9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허영환(2009), 「〈한국 환상곡〉의 여행: 1937년 미국에서 1946년 스페인으로」, 『낭만음악』 21(3), 낭만음악사, pp. 197-207 참조.

10 안익태의 1940-41학년도 리스트 음악원 등록서류는 김보국(2020a), pp. 91-93 참조.

받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당시 외트뵈쉬 기숙학교의 교장은 썬보 미클로쉬(Szabó Miklós)로서, 그는 학생으로, 선생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교장으로서 총 43년을 이 기숙학교와 인연을 맺었던 인물이었다. 그의 교장 재임 시기에 외트뵈쉬 기숙학교는 처음으로 민속학, 예술사, 심지어 음악과정을 교내 프로그램에 도입했으며,¹¹ 73명의 외국 학생들을 받아들이기도 하였다.¹² 외국학생으로서는 비교적 초창기에 입교하였던 안익태와 관련된 프로그램들도 그에 의해 시행되었으나, 결국 안익태는 썬보 미클로쉬가 교장으로 재임하고 있던 시기에 ‘반강제적’으로 퇴소하게 된 유일한 학생이었다.¹³ 더군다나 기숙학교와 장기간 동안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음악원에서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누구도 도움을 준 사실이 없었다는 것은 리스트 음악원으로부터도 그의 음악 활동이 제대로 평가 받지 못했다는 정황을 보여 준다. 그도 그럴 것이, 앞서 나열한 안익태의 당시 음악 활동은 실제로 음악적으로 전문가들로부터 평가를 받을 만한 무대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한편, 헝가리의 저명한 음악사가(音樂史家)인 딜로쉬 언너(Dalos Anna)는 안익태에 대해 “정치적인 이익을 추구하던 자로서(politikai haszonlesőként) 세

11 Markó Veronika (2011), “Szabó Miklós,” *Lustrum* (ed. by László Horváth, Krisztina Laczkó, Károly Tóth), Budapest: Typotex Kiadó – Eötvös Collegium, p. 113.

12 1937년부터 1940년대 초·중반까지 외트뵈쉬 기숙학교에는 외국 학생으로 이태리, 독일, 미국, 불가리아, 그리스, 폴란드, 터키, 핀란드, 일본(안익태 포함하여 2명), 재외 헝가리 동포,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스웨덴, 프랑스, 캐나다, 중국, 슬로바키아 국적의 학생들이 있었다[Garai Imre (2016), *A tanári elitképzés műhelye*, Budapest: ELTE Eötvös József Collegium, pp. 213-316 참조]. 썬보 미클로쉬는 외트뵈쉬 기숙학교에 상당한 공헌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2012년에 외트뵈쉬 기숙학교에서 그의 기념판 제막식이 있었다[Horváth László, Kádár Gyöngyvér (ed.) (2013), *ECCE, Eötvös Collegium-Collegium Értésítő II*. (2011/2012), Budapest: ELTE Eötvös József Collegium, p. 179].

13 안익태가 공식적으로 외트뵈쉬 기숙학교로부터 퇴교 명령을 받은 기록은 없으나, 외트뵈쉬 기숙학교의 역사를 기록한 책에 썬보 미클로쉬는 안익태의 기숙학교 사용 권한을 박탈해 줄 것을 (헝가리 교육성에) 요청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이는 ‘반강제적인 퇴소’라고 할 수 있다[Garai Imre (2016), p. 315. 각주 1121 참조].

계 곳곳을 다녔던 사람”¹⁴으로 기술한 바 있는데,¹⁵ 안익태가 외트뵈쉬 기숙학교를 떠났던 때는 그의 음악 활동에서 정치성이 점증하던 시기였던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당시 써보 미클로쉬의 외트뵈쉬 기숙학교 운영 철학과도 배치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37년부터 다수의 외국 학생들이 기숙학교에 머물렀는데, 그때는 나치 독일의 위세가 커져 가고 있던 시기였다. 특히 헝가리는 두 차례에 걸친 비엔나 재정(裁定)을 통해, 트리아농 조약으로 상실했던 슬로바키아와 트란실바니아의 일부 영토를 회복한데다, 곧 독일의 폴란드 침공(1939년 9월 1일)으로 실질적인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상황이라서 사회 분위기가 특히 긴장되고, 불안했으며, 희망과 공포가 교차하던 시기였다. 이런 상황에서 1939년 가을, 써보 미클로쉬는 교사회에서 이 엄중한 시기에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정치적인 것은 피할 것을(politikával ne foglalkozzék) 특별히 강조하기도 하였다.¹⁶ 따라서 안익태의 정치성 짙은 음악 활동은 기숙학교 측에서도 상당한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당시 기숙학교의 내부 규정으로, 독일 이외의 국가 방문은 학생들에게 금지되어 있었다.¹⁷ 그러나 독일-이태리-일본 간 삼국동맹 조약이 체결된 직후, 관할 헝가리 경찰에 어떤 신고도 없이, 이후 곧 이 조약의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되는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등을 방문한 것은 정치성을 띤 활동으로 이해될 수 있었을 것이다.¹⁸ 결국 써보 미클로쉬는 헝가리 교육성에 모든 내용을 알리고 교육성은 조건부로 안익태의 퇴거를 허

14 탈리안 티보르(Tallán Tibor)의 저술에 대한 딜로쉬 언너의 서평 중 일부 내용이다. 탈리안 티보르의 저술과 관련해서는 본고 4장 2절 참조.

15 Dalos Anna (2015), “Recenzió: Magyar képek, párhuzamos történetek,” *Magyar zene*, LIII évf., 3. sz., (ed. by Péteri Judit), Magyar Zenetudományi es Zenekritikai Tarsasag, pp. 350-351.

16 http://szabomiklos.eotvos.elte.hu/szabomiklos/archivum/images/Az_igazgato.pdf (접속일: 2022. 1. 8.)

17 Garai Imre (2016), p. 312.

18 헝가리는 1940년 11월에 20일에 삼국동맹조약에 가입하며,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도 이후 모두 동맹 가입국이 된다.

락하게 된다.¹⁹

상세한 원인을 나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안익태가 부다페스트를 떠나게 된 이유는 그가 외트비취 기숙학교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루마니아에서 안익태와 처음 알게 되고, 이후 안익태가 그의 저택에 머물기도 했던 에하라 고이치(江原耕一, 이하 에하라)의 진술에서도 드러나는데, 이 내용은 장을 바꾸어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안익태는 출교 이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1941년 10월에 ‘화려하게’ 헝가리로 되돌아와 ‘갑자기’ 지휘자로서 최고의 무대에 등장하는데, 그간의 행적, 특히 안익태와 에하라의 만남이 이후 그의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그의 이 헝가리 ‘복귀’ 무대는 헝가리 언론과 방송²⁰도 크게 주목한 행사였으며, 작곡가로서, 그리고 지휘자로서 그에 대한 평가가 클래식 음악을 다루는 전문 저널에도 처음으로 실리게 된다.

3. 안익태와 에하라: 루마니아에서 메이지절(明治節, 명치절)에 첫 만남

1940년 12월에 외트비취 기숙학교를 떠난 이후부터 1941년 10월 10일, 부다페스트 비거도(Vigadó)²¹의 지휘 무대에 오르기까지, 안익태의 행적에

19 헝가리 교육청은 안익태가 지불하지 않은 기숙학교 비용과 관련하여 그에게 지불 마감 시간을 고지하고 그 고지된 기한 내에도 정산을 하지 않으면, 1940년 12월 1일부터 퇴교 조치를 하도록 명한다. 기숙학교는 이 지시에 따랐으며, 안익태는 7월부터 10월 까지 비용을 1940년 11월 18일에 정산하지만, 그럼에도 12월에 퇴소를 한 것으로 기록은 전한다(Mednyánszky Dénes Könyvtár és Levéltár, 1/c Külföldi ösztöndíjas hallgatók nyilvánlántartása; 34. doboz, 50. dosszié. pp. 6-10 참조).

20 <https://filmhiradokonline.hu/watch.php?id=4404>

21 부다페스트 시내 중심가 근처, 다뉴브의 페스트(Pest) 강변에 있는 유서 깊은 공연장이

대한 자료는 극히 부족하다. 그가 세 해째 등록한 리스트 음악원의 1940-41학년도가 1941년 6월에 종료되기에 기숙학교를 나와서 부다페스트의 다른 곳에 거처를 마련했을 수도 있다.²² 하지만 몇몇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최소한 1941년 3월에 안익태는 베를린에 있었고, 활동 무대를 베를린으로 옮긴 것으로 추정된다.²³ 날짜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프랑크 호프만은 1941년부터 1943년까지 안익태가 당시 베를린 주재 만주국 공사관 참사이자 독일 주재 일본 정보 조직의 수장으로 전후에 알려진 에하라의 저택에 거주하였음을 그의 저서에서 주장한 바 있다.²⁴ 이경분은 안익태가 1936년

다. 윈 명칭은 페슈티 비거도(Pesti Vigadó)이며, 보통 비거도로 약칭한다. 1833년에 개장하였으나, 합스부르크 왕가로부터 독립을 위한 헝가리 해방전쟁 와중인 1849년에 완파되어, 재건 후 1865년에 다시 개장하였다.

- 22 허영한은 안익태가 1941년 3월까지 부다페스트에서 머문 것으로 기술하였다. 리스트 음악원에 1941년까지 등록을 했다는 점과 독일에서 안익태의 자필 기록이 1941년 3월, 베를린에서 시벨리우스의 악보를 구입한 것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그 근거로 하였다[허영한(2006), 「자필기록에 의한 안익태의 유럽 활동 재구성」, 『낭만음악』 19(1), 낭만음악사, pp. 7-19 참조]. 하지만 본문에서 살펴본바, 그는 1940년 12월에 외트비쉬 기숙학교를 퇴소하였으며, 베를린에서 시벨리우스의 악보를 구입한 기록이 있는 1941년 3월까지 그의 행적에 대한 명확한 자료는 아직 발견된 바 없다.
- 23 앞서 언급한 바, 그가 베를린에서 구입한 악보에 1941년 3월이라고 날짜가 적혀 있었던 점, 동년 6월 4일에 독일협회(独日協會, Deutsch-Japanische Gesellschaft)의 행사에 초청을 받았던 점, 그리고 동년 7월 11일, ‘꽃 전시회’에서 독일협회가 관여된 음악회를 지휘했던 점[이경분(2007), 『잃어버린 시간 1938-1944』, 휴머니스트, pp. 41-42] 등을 보면 ‘최소한’ 3월부터는 베를린으로 활동무대를 옮긴 것으로 보인다.
- 24 Hoffmann, Frank (2015), “The Berlin Koreans, 1909-1940s,” *Berlin Koreans and Pictured Koreans* (ed. by Andreas Schirmer and Frank Hoffmann), Wien: Praesens, pp. 110-111. 시기를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실제로 안익태가 에하라의 저택에 기거하고 있었음은 이경분이 2006년에 주장한 내용이다[이경분(2006), pp. 45-51]. 프랑크 호프만은 에하라가 독일 주재 일본 정보 조직의 수장으로 ‘여겨진다는’ 미 육군의 정보 보고서로 이를 보충하였으며, 그의 저서에서 명시한 1941~43년이라는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출처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한편, 프랑크 호프만은 안익태가 1930년대 말과 1940년에 부다페스트와 베를린을 오가며 베를린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하였는데[Frank Hoffman (2015), p. 110], 이에 대해서도 정확한 출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조금은 아쉽다. 왜냐하면 안익태가 1930년대 중반인 1936년 여름, 비엔나로 가는 여정 중 잠시 베를린에 들렀던 기록 [전정임(1998), 『안익태』, 시공사, pp. 22-23, pp. 32-33; 김경래(2002), pp. 98-108] 의

에 베를린을 잠시 방문한 것 외에 직업 음악가로서 그곳에 머물기 시작한 시기를 알 수 없다고 기술하며, 1941년 10월까지 그가 부다페스트에 근거를 둔 채 활동한 것으로 보았다.²⁵ 그리고 이경분은 독일협회와 안익태, 그리고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와 안익태의 관계가 에하라를 매개로 엮여진다는 점에서, 반면 프랑크 호프만은 안익태가 에하라의 스페셜 에이전트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들 두 연구자는 안익태와 에하라의 관계에 대해 방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관계가 언제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²⁶ 안익태와 에하라가 언제 만나게 되었는지는 이후 안익태의 활동과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기에 특히 중요하다. 에하라는 그의 글 〈안익태 군의 편모〉를 통해 1942년 명치절(11월 3일)에 루마니아 주재 (일본) 공사관에서 〈기미가요〉(君が代) 제창 시 피아노를 연주하던 안익태를 처음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²⁷ 하지만 이해영은 에하라가 적시한 ‘1942년 11월 3일’이 이후 이어지는 진술 중 ‘독소전쟁이 개시되던 해’(1941년)와 배치된다는 등의 이유로 에하라가 이 날짜를 착각하였음을 주장하였다. 즉, 그들의 만남은 그보다 한 해 더 앞선 1941년 11월 2일, 안익태가 음악회 지휘 차 루마니아를 방문하였을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다수의 자료를 통해, 에하라가 언급한 ‘1942년 11월 3일’은 이해영 등이²⁸ 언급한 1941년 11월 2일(일요일)이 아닌, 오히려 한 해 더 이전인 ‘1940년 11월 3일’(일요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안익태는 독일-이태

에 1930년대 말에 그가 베를린을 찾았다는 기록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1940년에 베를린에 있었다는 그의 주장이 분명한 출처에 근거한 것이라면, 안익태는 그해 11월까지 베를린에 간 기록을 찾을 수 없기에, 외트뉘쉬 기숙학교를 떠난 12월에 그는 벌써 베를린으로 옮겨 간 것이며, 이후 그곳을 중심으로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25 이경분(2007), pp. 99-100.

26 이경분(2007), p. 195; Frank Hoffman (2015), p. 111.

27 이해영(2019), 『안익태 케이스』, 도서출판 삼인, p. 224.

28 안익태와 에하라의 “1941년 11월 조우”는 이해영에 앞서 다음의 사이트에서 주장한 내용이기도 하다[<http://www.saturn.dti.ne.jp/~ohori/sub-ekitaiahn.htm> (접속일: 2019.1.21.)].

리-일본 간 삼국동맹조약이 체결된 1940년 9월 27일을 전후로 헝가리와 불가리아, 루마니아에서 음악회를 지휘하게 되는데, 그해 11월 3일에 루마니아의 지휘 무대에 선 적이 있었다.²⁹ 에하라가 언급한 1942년 11월 3일을, 바로 이 음악회가 있었던 때, 즉 1940년 11월 3일로 여기는 또 다른 근거는 음악회 관련 프로그램이다. 즉, 루마니아 주재 일본 공사관의 행사 후 당일 오후에 안익태가 음악회에서 베토벤의 곡을 지휘하였다고 에하라는 기술하였으나,³⁰ 1942년 11월 2일 안익태의 지휘곡명에 베토벤의 곡은 없었으며, 1940년 11월 3일의 연주 프로그램에 베토벤의 〈Egmond 서곡〉이 있었던 점을 들 수 있다.³¹ 당시 베를린에 주재하고 있던 만주국 공사관은 동유럽에서 그들의 외교적 활동을 활발하게 벌이던 시기였는데, 헝가리의 경우 동유럽 국가들 중 가장 먼저, 1939년 1월 9일에 만주국을 승인하였고,³² 1940년 10월 4일에 베를린 주재 만주국 공사가 신임장을 제정하였다.³³ 루

29 이들 국가 외에 이태리, 유고슬라비아 등 1940년 4월부터 안익태가 음악 활동을 위해 방문했던 모든 국가들은 이후 이 조약에 가입하게 된 국가들이다[김보국(2021), pp. 286-287].

30 이해영(2019), pp. 224-225. 에하라는 당일 안익태가 베토벤의 〈교향곡 6번〉을 지휘하였다고 서술하였으나, 실제로 지휘했던 작품은 그의 레퍼토리에 자주 등장하는 〈Egmond 서곡〉이었다.

31 1940년 11월 3일과 1941년 11월 2일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허영한(2009), pp. 201-207 참조. 에하라는 자신의 글에서 안익태의 공연 레퍼토리에 베토벤의 곡이 있었다는 것뿐 아니라 그날 참석한 루마니아 부인에 대한 언급에서 베토벤의 곡에 관련한 일화까지 언급하고 있다[이해영(2019), p. 225]. 따라서 에하라는 루마니아에서 1940년 11월 3일과 1941년 11월 2일(혹은 1942년 11월 3일)의 명치절 행사를 의도적이거나 혹은 착각으로 오기했을 수는 있으나, 1940년 11월 3일에 루마니아에서 안익태를 만났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32 Horthy Miklós (2011), *Emlékirataim*, Budapest: Európa Könyvkiadó, p. 240.

33 A M. Kir. Központi Statisztikai Hivatal (1941), *Magyarország tisztí cím- és névtára*, XLVIII. évfolyam, Budapest: Magyar Király Állami Nyomda, p. 41. 당시 베를린 주재 만주국 공사였던 루이원(Lü Yiwen, Lu I-wen, 呂宜文)이 헝가리 주재 만주국 공사를 겸임하였다. 참고로 헝가리에서 공무를 수행한 인원 목록에 따르면, 신임장 제정 당시 서기관으로 유키타카 이부키(伊吹幸隆)가 등록되어 있고, 에하라는 1943년 목록에 참사관으로 처음 등장한다[A M. Kir. Központi Statisztikai Hivatal (1943), *Magyarország tisztí cím- és*

마니아는 1940년 12월 1일에 만주국을 승인하였으며, 에하라는 ‘공무’로 당시 루마니아를 방문³⁴했다는 사실로 미루어 봐서, 그들의 직접적인 첫 만남이 1940년 11월 3일, 루마니아에서 있었던 것은 충분한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³⁵

부연하자면, 안익태와 에하라가 조우하였던 이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안익태의 음악적 경력이 상승하기 시작한 그의 지휘 무대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안익태가 언제부터 에하라의 저택에 기거하게 되었는지를 밝혀 주는 정확한 자료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나, 아래 에하라의 기술을 통해 그 시기를 가늠해 볼 수는 있다.

유학기간이 지나간 뒤에도 미국의 어떤 노은행가로부터 송금을 받아 그럭저럭 연구를 이어나가다가, 전쟁으로 인해 송금이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유럽에 머물며 공부를 계속하고 싶었던 안 군은 나에게 상담을 받고자 찾아왔다. 안 군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의 대성을 돕는 걸 바라지 않는 사람이 없었으나, 우리의 작은 힘이라도 보탬 좋은 지혜가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다가 ‘어찌되든 내 집에 오면...’하는 생각으로 독소 전쟁이 시작되던 해부터 베를린에서 그와 함께 살게 되었다.³⁶

상술한 바와 같이 1940년 가을은 안익태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 문제로

névtára, L. évfolyam, Budapest: Magyar Király Állami Nyomda, p. 43].

34 이해영(2019), p. 224.

35 에하라가 1938년부터 베를린 주재 만주국 공사관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이경분(2007), p. 194] 헝가리가 만주국을 승인한 1939년 전후, 그가 헝가리를 방문했을 수도 있다. 그 경우 형일회가 후원하였던 1939년 5월 17일의 안익태의 첼로 연주회나, 혹은 부다페스트 일본 공사 부부를 비롯한 공사관원 다수가 참석했던 1940년 9월 4일의 특별 음악회에서 그들이 조우했을 수도 있다. 1939년 5월 17일과 1940년 9월 4일 음악회에 대해서는 김보국(2021), pp. 267-287 참조.

36 이해영(2019), p. 226.

외트비쉬 기숙학교와 같듯이 침례화되던 시기였다. 그리고 1940년 11월 초에 그는 에하라와 친분을 갖게 되고, 위에서 옮긴 에하라의 기록에 따르면, 그가 1940년 12월, 안익태는 기숙학교에서 떠난 이후(또는 그 직전)에 에하라를 찾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에하라는 안익태가 자신의 저택에서 머물 수 있도록 제안하였는데, 앞서 살펴본 바, 그 시기는 1940년 12월에서 1941년 3월 사이로 추정된다. 안익태로 봐서는 모든 환경이 바뀌었던 그 시기에, 음악 활동이 주춤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1940년에 헝가리를 포함하여 총 5개 국가에서 연주, 혹은 지휘 무대를 가졌으나, 1941년의 경우 10월 이전에는 지휘 무대에 오직 한 번 섰을 뿐이다. 7월 11일에 있었던 그 한 번의 무대 또한 본고의 각주 23에서 잠시 언급하였던 ‘꽃 전시회’의 일부 행사였다. 그 ‘꽃 전시회’에는 다도(茶道) 도구와 일본 복식이 진열된 일본식 집이 일본풍 정원과 함께 세워져 있었다고 하며, 다나카 미치코(田中路子)³⁷가 기모노를 입고 마담 버터플라이를 불렀다고 묘사되는데, 전통적인 의미의 음악회와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인다.³⁸

4. 1941년 10월 10일, “안익태의 도쿄 오케스트라의 밤”

헝가리를 떠났던 안익태는 1941년 10월 10일 저녁 7시 30분에 비거도의 지휘 무대에 서며 ‘화려하게’ 복귀하게 된다. 이날 음악회는 지금까지 그가 섰던 지휘 무대 중에서 가장 큰 규모였으며, 10여 개의 신문에 수십 편의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고, 동년 11월 4일에는 헝가리와 유럽 전역에 라

37 오스트리아와 독일에서 활동하였던 일본 소프라노 가수이자 배우였다. 당시 베를린에 있던 그녀의 저택은 많은 예술가들에게 사교의 장이기도 했다.

38 <http://www.saturn.dti.ne.jp/~ohori/sub-ekitaiahn.htm> (접속일: 2019.1.21.). 출장 차 독일에 머물고 있던 일본 해군 대좌 라이준고(賴惇吾,らいじゅんご)는 1941년 7월 11일에 무관의 초대로 이 음악회에 참석하게 되고, 상기한 내용을 자신의 책 『그 전야』(その前夜)에 남긴 바 있다.

디오를 통하여 이 음악회의 녹음 중계가 방송되기도 하였다.³⁹ 당시 헝가리에서 일반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동영상 뉴스는 영화관에서 영화 상영 전에 짧게 방영하던 뉴스가 유일했는데, 안익태의 이 무대는 약 1분으로 축약되어 1941년 11월, 극장판 뉴스로 상영되었다. 무대 뒤의 대형 헝가리 국기와 일장기를 배경으로 안익태가 지휘하는 이 동영상이 송병욱에 의해 국내에 소개되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도 있다.⁴⁰ 실제 유럽에서 음악가로서 알려지게 되는 안익태의 활동은 이 음악회로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⁴¹ 그리고 이 시기는 앞서 살펴본 대로, 안익태가 에하라와 친분을 갖게 되고, 그의 저택에 기거하며 그의 베를린 시대의 시작과 겹치게 된다. 이 음악회가 기획된 배경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으며, 이 음악회 자체에 대해서도 국내에서는 단편적으로만 알려져 있

39 당시 유럽에서는 단파대역을 통해 주변 국가들의 방송을 쉽게 접할 수 있었기에 유럽 내에서 많은 방송들이 공송되었다. 따라서 신문의 라디오 편성표에는 유럽 주요 국가의 라디오 편성표가 함께 실렸다. 이날 라디오에서는 음악회 전체가 아닌, 일본 국가(國歌)인 〈기미가요〉, 〈에텐라쿠 환상곡〉, 그리고 베레쉬 산도르의 〈교향곡〉이 순서대로 방송되었다.

40 “헝가리 뉴스”(Magyar Híradó)로 1922년에 시작된 이 극장용 뉴스는 이후 “헝가리 세계 뉴스”(Magyar Világhíradó)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1944년까지 방영되었다[Fekete Bálint (2015), “Newsreels and Propaganda in Horthy era Hungary,” *Carnival*, XVII,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ents of History Association, p. 63]. 1941년 11월, 헝가리 세계 뉴스 923호에 안익태의 이 연주가 상영되었다. 내용은 다음의 링크 참조[<https://filmhiradokonline.hu/watch.php?id=4404> (접속일: 2020.2.20.)]. 송병욱이 국내에 소개한 내용은 송병욱(2008), 「헝가리 동영상과 안익태 이해의 새 키워드」, 『민족사랑』 3(142), 민족문제연구소, p. 15 참조.

41 헝가리 음악학연구소에서 작성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안익태가 등장하는 음악회는 총 2회로서, 1940년 9월 4일의 ‘특별 음악회’와 상기한 1941년 10월 10일의 음악회이다. 그는 먼저 1940년의 음악회에서 지휘 무대에 오르게 되지만, 여러 정황상 일본 공사관과 형일회가 관여한 음악회로 여겨지며, 무엇보다 야외에서 개최된 일종의 친목과 행사용 성격을 띠고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김보국(2021), pp. 281-287 참조. 하지만 1941년 10월의 지휘 무대는 비록 정치적 성격의 행사였던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당시 최고의 공연장 중 하나였던 비거도에서 ((일본) 교향곡)을 초연하는 등 형식과 내용적인 면에서 이전의 무대와는 달랐다고 할 수 있다.

다.⁴² 헝가리 음악학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이 음악회의 명칭은 “안익태의 도쿄 오케스트라의 밤”(Ekitai Ahn Tokio zenekari estje)으로 기록되어 있고, 헝가리 국립 오케스트라의 모체가 되는, 당시 수도 관현악단(Székesfővárosi Zenekar)이 연주를 맡았다. 프로그램은 로시니(Gioachino Rossini)의 <세미라미데 서곡>(Semiramis-nyitány), 슈베르트(Franz Schubert)의 <미완성 교향곡>(h-moll, D. 759, “Befejezetlen”(미완성)), 그리고 자신의 <에텐라쿠 환상곡>(Etenraku fantázia)과 베레쉬 산도르(Veress Sándor)의 <교향곡>(Szimfónia) 순으로 구성되었다.⁴³ <에텐라쿠>와 <교향곡>을 비롯하여 이날 음악회에 대한 언론 및 전문 저널의 평가 내용은 아래의 소단원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4.1. <에텐라쿠>(Etenraku)

<에텐라쿠>는 1940년대부터 안익태의 레퍼토리에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며, 대표적인 그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으나,⁴⁴ 작품에 대한 해설이나 설명 자료들은 많지 않다. 이 작품은 스페인 바로셀로나의 유서 깊은 극장인 ‘그란 테아트로 델 리세오’(Gran Teatro del Liceo, Great Theatre of the Lyceum)에서 1944년 3월 12일에 개최된 음악회에서도 연주되는데, 당시 프로그램⁴⁵에는 이 곡에 대해 간단한 설명이 담겨 있다. 이에 따르면 <에텐라쿠>는 1938년에 작곡되어 1940년 4월 30일에 로마에서 초연되었다고 한다.⁴⁶ 그

42 허영한(2009), p. 186, pp. 203-204 참조.

43 프로그램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실제 음악회는 양국의 국가인 일본의 <기미가요>와 헝가리의 <힘누쓰>(himnusz)로 시작되었다[『우이샤』(Újság), 1941.10.11, 8면 <일본 지휘자의 공연 소개>(Japán karmester bemutatkozása) 참조].

44 이경분(2007), pp. 133-144.

45 <https://ddd.uab.cat/pub/societatliceu/societatliceupro/1943/144070/42023-015@societatliceu.pdf> (접속일: 2021.12.22.)

46 프로그램에는 ‘1938년’에 작곡하여 ‘1930년 4월 30일’에 발표된 것으로 적혀 있는데,

리고 1940년 4월 24일의 『조선일보』 기사는 그의 〈夜樂(雅樂에 依함)〉이 1940년 4월 30일에 로마에서 처음 연주될 예정임을 알리고 있기에,⁴⁷ 이 두 작품, 즉 〈夜樂〉과 〈에텐라쿠〉는 동일한 곡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⁴⁸ 하지만 이 작품이 실제로 1938년에 작곡되었는지, 그리고 이 두 작품이 동일한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 1938년에 안익태는 더블린과 부다페스트에서 각각 지휘 무대에 서며 다수의 인터뷰 기사를 남긴 바 있는데, 〈에텐라쿠〉 창작과 연관시켜 본다면, 1938년 7월 12일에 게재된 인터뷰 기사에서 관련 내용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 인터뷰에서 그는 ‘민족의 정신’에서 유래한 모티브로 교향곡(szimfónia)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곡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음악가⁴⁹를 찾고 있으며, 부다페스트에서 그분을 만나게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⁵⁰ 그가 언급한 그 ‘교향곡’이 〈에텐라쿠〉일 가능성도 있

1930년은 1940년의 오류로 보인다. 반면, 〈에텐라쿠〉가 1938년에 발표[노동은(2010), 『노동은의 세 번째 음악상자』, 한국학술정보(주), p. 36]되었다거나, 작곡[노동은(2017), 『인물로 본 한국 근현대 음악사』, 민속원, pp. 127-128]되었다는 기술은 다른 자료에서도 등장하지만, 분명한 출처가 부족하다. 한편, 1943년 8월 18일 베를린 필하모니 프로그램에는 〈에텐라쿠〉가 1938년에, 1960년 런던 필하모니 연주회 프로그램에는 〈강천성악〉이 1940년에 작곡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이경분, 2007, pp. 148-149]. 참고로 전정임은 “夜樂(雅樂에 依함)”을 〈강천성악〉과 동일한 작품으로 보고, 파울 힌데미트(Paul Hindemith)와 만남의 일화, 그리고 부인인 로리타 안의 기록 등을 근거로 이 작품의 1936년 작곡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전정임(1998), pp. 164-195 참조].

47 〈滯歐中の 安益泰氏(체구중의 안익태씨)〉, 『조선일보』 1940년 4월 24일, 3면. 이 기사에 나온 안익태의 유고슬라비아, 이태리 공연 날짜와 허영한이 안익태의 여권 기록과 각국의 신문 기사를 토대로 재구성한 그의 여정에는 차이가 있다[허영한(2009), pp. 197-198 참조].

48 이 프로그램에는 〈에텐라쿠〉에 등장하는 “shakuhachi”(샤쿠하치, 尺八)를 일본식 플루트(flauta japonesa)로 부연하며 도입부를 설명하는데, 이는 이후 〈강천성악〉으로 옮겨지며 한국의 ‘피리’로 대체되었다는 송병욱의 주장을 뒷받침한다[송병욱(2008), pp. 14-16]. 이경분은 이에 앞서 〈에텐라쿠〉와 〈강천성악〉이 동일한 곡이라는 주장을 하였다[이경분(2007), pp. 144-150].

49 인터뷰에서 거명하지는 않았으나, 이후 언론 기사 등을 토대로 이는 코다이 줄탄(Kodály Zoltán)으로 여겨진다[김보국(2020b), 「안익태 II」, 『인문학연구』 33, 인문학연구소, p. 273; 김보국(2021), p. 267 참조].

50 김보국(2020b), p. 266.

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면, 코다이 줄탄의 영향을 받아 일본 전통음악을 그가 작곡하여 대표곡으로 연주를 이어 간 셈이므로 그다지 개연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⁵¹ 1938년, 안익태와 〈에텐라쿠〉의 ‘인연’의 흔적은 이보다는 다른 자료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1938년 11월 8일, 리스트 음악원의 연주회장에서는 펠릭스 바인가르트너(Paul Felix Weingartner)를 사사했던⁵² 오타카 히사타다(尾高尚忠)의 지휘 무대가 있었는데, 당시 그의 레퍼토리에 고노에 히데마로(近衛秀麿)의 〈에텐라쿠〉도 포함되어 있었다.⁵³ 그때는 안익태가 리스트 음악원에 등록한 첫 학기였는데, 특히 언론에서 우호적인 평가를 받은⁵⁴ 이 음악회가 그에게 하나의 자극이 되었을 수도 있다. 물론 이러

-
- 51 허영환은 벌써 1960년대부터 전문가들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밝힌 바 있다[허영환(2009), pp. 186-187 참조]. 여러 정황들을 보면 애초에 그가 구상하였던 조선 전통의 음악이 실제로 구체화되면서 〈에텐라쿠〉로 변경되어 1940년에 초연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
- 52 일전에 바인가르트너가 일본을 방문하였을 시, 그가 오타카 히사타다의 곡을 프로그램에 올리려 하였으나, 서구의 음악을 듣고자 하는 일본 청중들의 요구로 이는 실현되지 못했던 일화가 소개되기도 하였다[『우이 머저르샤』(*Új magyarság*), 1938.10.23. <도쿄의 지휘자 히사타다 오타카는 일본과 헝가리 민속 음악 간의 친족관계가 놀랍다고 말하였다>(*Feltűnő a rokonság a japán és a magyar népzene között, mondja Hisadata Otaka tokiói karmester*), 19면 참조].
- 53 안익태는 스토크오프스키(Leopold Anthony Stokowski)의 교향악단에서 첼로 연주를 하며 [김보국(2020b), p. 266], 지휘도 그에게서 배웠다고 하였다[『조선일보』, <米國樂壇의 寵兒 우리 音樂家 安君>(미국악단의 총아 우리 음악가 안군), 1934.2.15. 2면]. 1934~1935년 당시 스토크오프스키는 고노에 히데마로의 〈에텐라쿠〉를 다수 연주한 기록들로 봐서 이미 이 〈에텐라쿠〉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스토크오프스키의 〈에텐라쿠〉 관련 연주에 대해서는 https://www.stokowski.org/Stokowski_Philadelphia_Electrical_Discography.htm, https://www.stokowski.org/Stokowski_Concerts-1933-1949.htm 참조 (접속일: 2020.5.11.).
- 54 다수의 언론에서 성공적인 지휘 무대에 관한 공연 후기를 게재하였다[『머저르 넴제트』(*Magyar Nemzet*), 1938.11.9. <리스트 음악원에서 일본 교향악단의 밤>(Japán zenekari est a Zeneakadémián) 13면 참조]. 또한 안익태는 1941년 10월 10일 음악회에서 직전에 행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에텐라쿠 환상곡〉에 대해 설명하며, ‘에텐라쿠’라는 장르가 고노에 히데마로의 〈에텐라쿠〉를 통해 특히 유럽에서 많이 알려졌음을 언급한 바 있다[『페스터 로이드』(*PESTER LLOYD*), 1941.10.8. 9면 참조].

한 정황이 〈에텐라쿠〉의 창작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어쨌든 안익태의 〈에텐라쿠〉는 1938년에 구상을 했거나 초안이 만들어졌을 수는 있으나, 1940년까지 어떤 기록물에도 등장하지 않는 점, 1939년 5월 17일과 1940년 3월 9일 등 부다페스트에서 있었던 자신의 연주회 레퍼토리에 이 작품이 포함되지 않은 점⁵⁵을 보면 초연이 있었던 1940년경에 작품으로서 구체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4.2. “황기 2600주년 기념 봉축곡”(皇紀2600年奉祝曲), 그리고 안익태의 <일본 교향곡> 지휘와 그 평가

오페라하우스와 함께 부다페스트의 대표적인 공연장이었던 비거도에 서 1941년 10월 10일의 음악회가 많은 관심을 받으며,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베레쉬 산도르의 첫 교향곡이 발표되었기 때문이었다. 베레쉬는 작곡가, 피아니스트이자 민속 음악 연구자로서 코다이와 바르톡(Bartók Béla)의 1세대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음악가 중 한 명이었다.⁵⁶ 베레쉬의 첫 번째 교향곡이 처음 소개된 이 음악회는 앞서 언급한 대로 상당한 규모에다 언론의 조명도 많이 받았던 무대였다. 일부 언론은 이를 소개하며 〈베레쉬 산도르의 일본 교향곡 초연〉(Veress Sándor Japán szimfóniájának bemutatója)이라는 제목을 붙일 정도로 그의 첫 교향곡 발

55 이 연주회에 대해서는 김보국(2021), pp. 267-27 참조.

56 그는 코다이와 바르톡에게서 작곡과 피아노를 배웠다. 바르톡은 그를 두고 ‘최고의 젊은 작곡가들 중 한 명’으로 평가하기도 하였다[Horváth László (2011), “Szimfonikus felfedezések, Veress Sandor: Prima Sinfonia,” *Zenekar 3, Magyar Szimfonikus Zenekarok Szövetsége*, p. 27]. 바르톡은 폐쇄적이라고 할 정도로 과묵하였는데, 다른 교수로부터 피아노를 배우던 베레쉬가 그의 제자가 된 것, 그리고 민속음악 연구에 있어서 그의 조력자가 되고, 나중에는 동료가 된 것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Lencsés Gyula (2013), “A terepmunkától a művészi alkotásig: Veress Sándor és Dudar,” *Múlt és jelen: Szegedi társadalomkutatók dudaron 1937-2012* (ed. Lencsés Gyula, Feleky Gábor), Szeged: Belvedere, pp. 25-26 참조.

표에 많은 음악 애호가들은 관심을 보였다.⁵⁷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외교적으로는 안익태가 선보인 일본 음악이, 음악·예술적으로는 베레쉬의 첫 교향곡이 주목을 받았던 음악회라고 할 수 있다.

국내·외에서 베레쉬의 이 작품은 소위 “황기 2600주년”을 맞아 일본의 위촉으로 탄생된 작품들 중 하나로 소개되고 있으나,⁵⁸ 실제로 베레쉬에게 직접 위촉된 것은 아니며, 헝가리 교육성이 공모를 통해 그의 곡을 선정하여 일본으로 전해진 작품이었다.⁵⁹ 이 작품은 1940년 11월에 도쿄의 라디오에서, 12월에는 도쿄의 가부키 극장에서 연주되었으며, 이후 오사카의 무대에 올려졌고, 라디오로도 소개되었다.⁶⁰ 헝가리에서 이 곡의 초연을 안익태가 맡은 것은 이 곡의 정치적인 성격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휘자로서 그의 역량이 검증되지는 않았으나, 일본의 소위 ‘황기 2600주년’을 기념하는 헝가리 음악가의 작품을 일본 지휘자가 헝가리에서 초연한다는 상

57 『우이삭』, 1941.10.8. 8면. 참고로 당시 이 작품의 명칭은 〈(1번) 교향곡〉(Szimfónia)이었으나, 일반적으로 〈일본 교향곡〉(Japán szimfónia)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하지만 당시 신문의 관련 기사에서 “일본과 관련이 있는 것은 단지 도쿄의 기념행사에서 소개되었다는 것뿐이기에, 앞서 〈일본 교향곡〉으로 알려진 것은 잘못이다.”라고 적은 것을 보면, 〈일본 교향곡〉이라는 명칭은 공식적인 명칭이 아님을 알 수 있다(『우이삭』, 1941.10.11. 8면). 또한 베레쉬는 내용적으로 그의 이 작품이 ‘일본’과 관련이 없기에 〈교향곡〉 앞에 ‘일본’을 붙이는 것을 탐탁하지 않게 여겼다고도 한다(Horváth László (2011), p. 28).

58 이경분(2007), p. 211; 허영환(2009), p. 203; 安藤真澄 (2019), “ドビュッシューとジャポニスムをめぐる音楽社会学的考察”, 『アカデミア』社会科学編 17, 南山大学, pp. 188-189.

59 Horusitzky Zoltán(ed.) (1941a), *A Zene XXII. évf. 5 sz.*, Budapest: Hollóssy János könyvnyomtató, p. 70. 음악사 연구자들의 논문이나 전문서적에는 베레쉬가 일본 왕실의 2600년 존속 기념으로 공고(公告)한 국제 작곡 경연(競演) 대회에 그의 〈1번 교향곡〉으로 지원하여 수상하였다고 기술하지만[Lencsés Gyula (2013), p. 30; Tallián Tibor (2014), p. 34], 당시 발행된 신문 기사와 음악 전문 저널의 기사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일본이 유럽 각 국가들에 요청하고, 헝가리는 교육성에서 공모를 하여 이 작품을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넵제티 우이삭』, 1941.10.9. 9면, 〈일본 교향곡〉(Japán szimfónia) 참조).

60 Horusitzky Zoltán(ed.) (1941b), *A Zene XXII. évf. 13 sz.*, Budapest: Hollóssy János könyvnyomtató, p. 220; Horusitzky Zoltán (ed.) (1941c), *A Zene XXIII. évf. 3 sz.*, Budapest: Hollóssy János könyvnyomtató, p. 44.

징성이 중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바, 안익태가 지휘를 맡은 데에는 에하라를 비롯한 그의 일본 측 후원 인맥들의 지원과 그가 헝가리에서 음악 공부를 하였다는 점도 어느 정도 역할을 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어쨌든 이후 안익태는 독일을 주 무대로 지휘자로서 경력을 쌓게 되는데,⁶¹ 역설적이게도 헝가리에서는 더 이상 지휘 연단에 등장하지 않게 된다.⁶² 이후 빠듯한 공연 스케줄로 헝가리 무대를 외면할 수밖에 없었을 그의 사정도 상상해 볼 수 있겠지만, 10월 10일의 지휘 무대에 대한 헝가리 평단의 비평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당시 헝가리에서 가장 권위 있는 클래식 음악 전문 저널이었던 『음악』(*A Zene*)은 이 음악회를 전하며, 〈에텐라쿠〉에 대해서도, 베레쉬의 작품에 대한 지휘에 대해서도 혹독한 평가를 하였다. 우선 일본 음악으로서 〈에텐라쿠〉에 대한 간단한 설명에 이어 환상곡으로 붙인 이름 자체가 형식적으로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최소한 환상곡의 도입부(*legfeljebb csak egy fantázia bevezetése*)이며, 편곡 방식에서 고집저음(*ostinato*)을 베이스로 내세운 것을 이미 철지난 방식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음악회에서 가장 주목한 부분은 베레쉬의 교향곡이었는데, 초보 지휘자로 인해 제대로 감상할 수 없었으며,⁶³ 음(향)의 부조화들(*hangzási egyenlőtlenségek*)에 대하여 지휘자의 잘못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후 제대로 된 지휘로 연주될 때까지 베레쉬의 이 작품에 대한 평가를 유

61 이경분(2007), pp. 48-64 참조.

62 김경래는 안익태가 “1943년까지 매년 부다페스트 국립 심포니 초청 지휘자로서 큰 환영을 받았다”고 하였으나, 1941년 10월 10일의 이 음악회 이후 그가 지휘자로서 역할을 맡은 음악회는 없다. 단지 첼로 주자로서 1942년 10월 14일과 동년 12월 3일에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슈베르트(Franz Peter Schubert)의 〈아베마리아〉와 〈백합〉의 연주가 방송된 기록이 있다[김보국(2021), p. 280 참조].

63 원문에서는 이를 예들러 표현하였는데, 그 내용을 직역하자면, 다음과 같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이 지휘자가 이제 ‘(피기) 시작하는’ 단계임을 이 작품에서 가장 잘 알 수 있었는데, 이 때문에 이 신작(新作)에 대해 정확한 상(像)을 가늠할 수 없었다”(Sajnos, éppen ennél a műnél éreztük legjobban a karmester »bontakozó« állapotát, mely miatt nem tudtunk tiszta képet kapni az újdonságról).



[그림 1] 1941년 10월 8일자, 신문 1면에 게재된 안익태의 사진. 사진 아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일본인 지휘자 안익태가 10월 10일 수도 관현악단을 지휘하다”(Ekitali Ahn japán karmester október 10-én a Székeséfvárosi Zenekart vezényli).



[그림 2] 1941년 10월 11일자 『에슈티 우이샤』 8면에 실린 음악회 소개 기사와 안익태의 캐리커처

보한다든 견해까지 밝히기도 하였다.⁶⁴ 실제로 이 작품은 1943년 1월 8일에 같은 장소인 비거도에서 연주되었는데, 이후 헝가리 음악사가 탈리안 티보르의 이에 대해 음악적으로는 첫 번째 발표였다고 기록하고 있다.⁶⁵ 안익태

64 Horusitzky Zoltán (ed.) (1941c), p. 44.
 65 “... 1941년에 이국적인, 하지만 지휘 기교에는 전문성이 조금 부족한 일본인, 혹은 조선인인 안익태에 의해 연주되었으며, 음악적인 의미에서는 처음으로 1943년 1월에 페렌치크(Ferencsik)가 지휘하였다”(... 1941-ben az egzotikus, de a karmesteri mesterségben

에 관한 많은 기록들은 대부분이 신문 기사들로서 그의 음악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가 결여되었으나, 이 비평들은 당시 음악 전문 저널에 실린 내용으로서도 그 의미가 각별하다고 할 수 있다.

4.3. 1941년 10월 10일의 음악회 관련 헝가리 언론의 비평

『넵제티 우이샤』의 경우 1면에 사진을 실어 이 음악회를 알리기도 하였다.⁶⁶ 다수의 신문은 그를 베를린, 로마, 미국에서 잘 알려진 일본의 젊은 지휘자로,⁶⁷ 그리고 『에슈티 우이샤』(*Esti újság*)은 캐리커처와 함께 안익태를 일본의 상당히 고매한 집안 출신의 청년(*igen előkelő japán családból való ifjú*)으로 소개하였다.⁶⁸ 거의 대부분의 신문에서 이 음악회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였으나, 이전의 언론 기사들과는 다르게,⁶⁹ 음악 전문 기사가 1941년 10월 12일 『녘썬버』(*Népszava*)에 실은 비평에는 안익태가 조선 출신이며, 그와 조선과의 관계 또한 언급되어 있다. 이 비평은 당시 음악 평론가로 활동하며, 그 자신이 작곡가이자 지휘자이기도 했던 엠니츠 산도르(*Jemnitz Sándor*)가 쓴 기사로서 안익태와 이 음악회에 대해 비판적인 논조를 견지하고 있다.

kevésbé járatos japán vagy koreai Ekitai Ahn vezényletével, másodszer — zenei értelemben először — 1943 januárjában Ferencsik irányítása alatt). Tallián Tibor (2014), *Magyar képek: Fejezetek a magyar zeneélet és zeneszerzés történetéből 1940–1956*, Budapest: Balassi Kiadó, p. 34.

- 66 이는 『넵제티 우이샤』의 독특한 레이아웃 방식이다. 이 신문은 항상 기사 내용과 관련 있는, 보통 4인의 인물 사진을 1면에 배치하였다. 1941년 10월 8일자 신문에서도 그의 사진이 1면에 실렸으며, 실제 기사는 단신으로 처리하였다. 사진 옆의 제목은 “거대한 동부 공세가 점점 빠른 속도로 전진하다”(Fokozódó lendülettel halad előre a nagy keleti offenzíva)이다. 이러한 편집 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보국(2021), p. 286 참조.
- 67 『우이 머저르샤』, 1941.9.27. 8면, 『넵제티 우이샤』, 1941.9.27. 9면, 『녘썬버』, 1941.9.27. 4면, 『머저르샤』(*Magyarország*), 1941.10.3. 9면.
- 68 <일본 지휘자: 헝가리 테뷔 무대에서>(Japáni dirigens: magyar bemutatón), 『에슈티 우이샤』, 1941.10.11. 8면.
- 69 김보국(2020a), pp. 76–80; (2020b), pp. 259–277; (2021), pp. 265–284 참조.

세로로 3단에 걸친 장문의 기사 내용 중 베레쉬 산도르의 작품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고 안익태와 그의 지휘에 대한 내용만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안익태에 관해 써야 할 때면 고백하건데 나는 요즘 조금 당황스럽다. … 몇 년 전에 그가 처음 나를 찾았을 때, 자신은 조선인이며, 자신이 작곡한 음악은 조선 음악이라고 하였다. … 조선 음악이 중국과 일본의 음악과 본질적으로 차별되는 특징에 대해 지적하며 조선의 음악을 다른 음악으로 치부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 조선의 음악 학교는 그가 아주 풍족하게 지낼 수 있도록 유학을 보냈다. … 그는 미국과 서유럽을 거쳐 여기로 ‘밀려 왔다’. … 주로 도흐나니 에르뇌(Dohnányi Ernő)와 코다이 줄탄으로부터 배움을 만끽할 수 있는 부다페스트로 정착한 것에 대해 그는 본능적으로 현명한 선택이라고 하였다. 그 이전에는 브루노 발터(Bruno Walter)에게서 지휘 수업을 받았다고 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을 일본인이라고 하며, 자신의 음악을 일본의 음악이라고 한다. 이후로는 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나는 그를 어떤 사람으로 이해해야 할까? …

그의 지휘법이 흥미롭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일방적으로 다이내믹하 기만 하다. 이 지휘자의 관심은 오직 강약의 변화에만(kizárólag csak az erőfokozatok változatai) 있을 뿐이다. 이러한 강약의 변화는 분명 받아들인 것 같으나, 멜로디 요소에 대해서는 매우 둔감하다. … 이 극동의 지휘자는 곡의 분위기와 정서적 표현 모두를 전체 멜로디에 조화시키지 못했다. … (그가) 이해하지 못한, 성가실 정도로 비밀스러운 유럽 음악의 구성 요소에 대해 그가 붙잡을 수 있는 것, 기댈 수 있는 것은 오직 역동적인 것뿐이다.

… 이 <에텐라쿠>는 극동 아시아의 대량 생산 공예품(a keletázsiai iparművészeti tömegcikkek)과 위협할 정도로 유사하다. 이 대량 생산품들은 주로 수출용으로, 게다가 대부분은 해외에서 제작된다. 그 누구에게도 이들

의 진위여부(hitelességük)는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외국인들의 선입견과 상상들을 충족시켜줄 의무만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

… 베레쉬 산도르의 교향곡이 이제 전문적인 지휘자의 손에서 제대로 된 형태로 연주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⁷⁰

“〈에텐라쿠〉라는 제목의 교향곡은 고대 일본의 멜로디로서, 기분 좋은 인상을 남겼다”,⁷¹ “섬세하게 구성된 고대 일본 멜로디를 차용한 안익태의 교향시(szimfonikus költemény) 역시 큰 성공(meleg siker)을 거두었다. 청중은 열정적 몰입으로(lelkes odaadással) 지휘한 이 객원 지휘자 및 젊은 작곡가에게 따뜻한 축하를 건네었다”,⁷² “로시니와 슈베르트의 곡을 악보 없이 지휘한 것은 의심의 여지없이 매우 중요한 성과였다. 정확한 큐(beintés) 사인과 주의 깊은 동작으로 선율을 지휘하고, 절제된 음색의 효과를 선보이며(hangszinhatások mértékletes alkalmazásával) 가장 큰 성공을 거두었다”,⁷³ “젊은 일본의 지휘자는 지휘자로서뿐 아니라 작곡가로서도 부다페스트의 청중들 앞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 교향악단을 지휘할 줄 아는 열정적이고 탁월한 리듬감을 가진 지휘자 … 그는 작곡가로서 〈에텐라쿠〉 환상곡을 소개하였다. 드뷔시, 바르톡, 그리고 코다이에 익숙한 청중들은 다채로운 색상을 한, 이 순수 일본 작품을 이해했고, 즐기며 경청하였다.”⁷⁴ 등 호의적인 평가도 다수 있었으나 단편적이었으며, 부정적인 평가와 함께 실리는 경우

70 〈에키타이 안의 음악회에서 베레쉬 산도르의 교향곡〉(Veress Sándor simfóniája Ekitai Ahn hangversenyén), 『뉘썬버』, 1941.10.12. 17면. 엠니츠 산도르는 그의 기사에서 ‘몇 년 전에’ 안익태를 만난 적이 있음을 밝혔는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1940년 9월 4일 안익태의 음악회에 대한 비평을 동일한 신문에 게재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김보국(2021), pp. 281-287 참조.

71 『뉘썬버』(Függetlenség), 1941.10.10. 12면.

72 『에슈티 우이샤』, 1941.10.11. 8면.

73 『넵제티 우이샤』, 1941.10.11. 9면.

74 『머저르샤』, 1941.10.12. 15면.

도 다수였다.⁷⁵

일간지에 실린 비평으로는 조금은 예외적인 상기 기사와, 앞서 살펴본 왔던 클래식 음악 전문 저널의 평가로 보면, 안익태가 이 음악회 이후 왜 헝가리에서 다시는 지휘 무대에 설 수 없었던 지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5. 맺는 말

이상으로 1940년 12월, 안익태가 외트비쉬 기숙학교를 퇴교한 이후부터 1941년 10월 10일, 부다페스트의 비거도에서 음악회가 있었던 시기까지 그와 관련된 기록들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와는 다르게, 본고에서는 자료로 남아 있는 당시의 연주 프로그램 등을 근거로, 안익태와 에하라 고이치와 첫 조우 시기가 1940년 11월, 안익태가 공연 차 루마니아를 방문하였을 때였던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안익태가 유럽에서 계속 머물며 학업을 지속하기 위해 에하라를 찾았던 시기는 1940년 12월, 안익태가 외트비쉬 기숙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었을 때와 일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안익태가 에하라의 저택에 머물게 된 시점과 그가 지휘자로서 경력이 상승하게 되는 시점이 겹쳐지기 때문이다. 그는 베를린에 머물면서 1941년 7월 11일, ‘꽃 전시회’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된 음악회를 지휘한 후, 동년 10월 10일에 지금까지의 지휘 무대와는 다른, 형식과 내용

75 “(베레쉬 산도르의 심포니는) 유럽 수준에서도 높은 가치를 지닌 작품이며, 분명 더 나은 무대에서(még jobb előadásban) 이 작품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픽게틀렌세그』, 1941.10.10.), “희망하건데 조만간 완벽한 무대에서 이 훌륭한 신작을 들을 수 있기를”(『에슈터 우이샤』, 1941.10.11.), “(베레쉬 산도르의 심포니에 대해) 일본 지휘자가 전한 것으로는 진정한 연주라고 할 수 없기에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우이 머저르샤』, 1941.10.11.), “(〈에텐라쿠〉는) 고대 일본의 모티브에서 유래했으며, 현대의 악기로 편곡된 작품이다. 흥미로웠지만 원형의, 원시적 형식이었다면 아마 더 흥미로웠을 것이다”(『엘렌지크』(Ellenzék), 1941.10.12. 7면).

적으로도 “음악회”라는 격식에 맞는 지휘 무대에 처음으로 서게 된다. 이 음악회를 시작으로 안익태의 음악적 경력은 독일을 주 무대로 하여, 약 2년 동안 활발하게 펼쳐진다. 본고에서는 헝가리 출처의 자료들을 통해 이 10월 10일의 음악회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당시 일부 신문과 음악 전문 저널에 게재되었던 안익태의 무대에 대한 혹독한 비평은 결국 그가 이후 헝가리에서 지휘를 하지 못하게 된 원인과 무관해 보이지는 않는다.

본문에서 언급한 바, 헝가리의 저명한 음악사가 델로쉬 언너는 안익태에 대해 “정치적인 이익을 추구하던 자로서 세계 곳곳을 다녔던 사람”으로 묘사하였는데, 지금까지 자료들을 통해 확인한 바로 이는 과장된 표현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안익태와 관련하여 새로운 자료들의 발굴과 기존 사실들에 대한 검증 및 이들의 간극을 합리적인 해석으로 채우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기를 바라며 줄고를 마친다.⁷⁶

참고문헌

자료

한국 신문: 『조선일보』

헝가리 신문: 『넵제티 우이샤』(*Nemzeti Újság*), 『에슈티 우이샤』(*Esti újság*), 『녘썬머』(*Népszava*), 『우이샤』(*Újság*), 『우이 머저르샤』(*Új magyarság*), 『머저르 넵제트』(*Magyar Nemzet*), 『페슈터 로이드』(*PESTER LLOYD*), 『머저르샤』(*Magyarság*), 『퓌게틀렌세그』(*Függetlenség*), 『엘렌지크』(*Ellenzék*).

76 1941년 10월 10일 음악회와 관련하여 두 개의 헝가리 신문에서 그와 나는 장문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본문에서는 그 음악회에 대한 비평을 위주로 다루었기에 인터뷰 기사들을 소개하지 않았으나, 안익태 자신이 밝힌 그의 행적에 관심 있는 연구자들에게 이 인터뷰 자료는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페슈터 로이드』, 1941.10.8. 9면, 『퓌게틀렌세그』, 1941.10.10. 7면 참조.

외트비쉬 요제프 기숙학교 문서보관소 자료(부다페스트, 헝가리):

Mednyánszky Dénes Könyvtár és Levéltár, 1/c Külföldi ösztöndíjas hallgatók nyilván-
tartása; 34. doboz, 50. dosszié.

헝가리 국가기록원 자료(부다페스트, 헝가리):

MNL, VKM, 1937-1941, 44-2, 3. poz., 883 doboz, 문서번호: 36.531.

MNL, VKM, 1937-1941, 44-2, 3. poz., 883 doboz, 문서번호: 34.937.

인터넷 자료:

http://szabomiklos.eotvos.elte.hu/szabomiklos/archivum/images/Az_igazgato.pdf (접속
일: 2022.1.8.)

<http://www.saturn.dti.ne.jp/~ohori/sub-ekitaiahn.htm> (접속일: 2019.1.21.)

<https://filmhiradokonline.hu/watch.php?id=4404> (접속일: 2020.2.20.)

[https://ddd.uab.cat/pub/societatliceu/societatliceupro/1943/144070/42023-015@
societatliceu.pdf](https://ddd.uab.cat/pub/societatliceu/societatliceupro/1943/144070/42023-015@societatliceu.pdf) (접속일: 2021.12.22.)

https://www.stokowski.org/Stokowski_Philadelphia_Electrical_Discography.htm,

https://www.stokowski.org/Stokowski_Concerts-1933-1949.htm (접속일: 2020.5.11.)

논저

김경래(2002). 『안익태의 영광과 슬픔, 청개구리들의 만찬』, 일곡문화재단.

김경래(1966). 『코리아 幻想曲: 安益泰의 榮光과 슬픔』, 현암사.

김보국(2021), 「안익태 III」, 『인문논총』 78(1), 인문학연구원.

김보국(2020a), 「안익태 I」, 『한국학연구』 72, 한국학연구소.

김보국(2020b), 「안익태 II」, 『인문학연구』 33, 인문학연구소.

노동은(2017), 『인물로 본 한국 근현대 음악사』, 민속원.

노동은(2010), 『노동은의 세 번째 음악상자』, 한국학술정보(주).

송병욱(2008), 「헝가리 동영상과 안익태 이해의 새 키워드」, 『민족사랑』 3(142), 민족문
제연구소.

이경분(2007), 『잃어버린 시간 1938-1944』, 휴머니스트.

이경분(2006), 「안익태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낭만음악』 19(1), 낭만음악사.

이혜영(2019), 『안익태 케이스』, 도서출판 삼인.

전정임(1998), 『안익태』, 시공사.

허영한(2009), 「〈한국 환상곡〉의 여행: 1937년 미국에서 1946년 스페인으로」, 『낭만음악』
21(3), 낭만음악사.

허영한(2006), 「자필기록에 의한 안익태의 유럽 활동 재구성」, 『낭만음악』 19(1), 낭만
음악사.

安藤真澄(2019), 「ドビュッシーとジャポニズムをめぐる音楽社会学的考察」, 『アカデ
ミア』 社会科学編 17, 南山大学.

- A M. Kir. Központi Statisztikai Hivatal (1943), *Magyarország tisztí cím- és névtára*, L. évfolyam, Budapest: Magyar Király Állami Nyomda.
- A M. Kir. Központi Statisztikai Hivatal (1941), *Magyarország tisztí cím- és névtára*, XL-VIII. évfolyam, Budapest: Magyar Király Állami Nyomda.
- Dalos Anna (2015), "Recenzió: Magyar képek, párhuzamos történetek," *Magyar zene*, LIII évf., 3. sz., (ed. by Péteri Judit), Magyar Zenetudományi es Zenekritikai Tarsasag.
- Fekete Bálint (2015), "Newsreels and propaganda in Horthy era Hungary," *Carnival*, XVII,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ents of History Association.
- Garai Imre (2016), *A tanári elitképzés műhelye*, Budapest: ELTE Eötvös József Collegium.
- Hoffmann, Frank (2015), "The Berlin Koreans, 1909–1940s," *Berlin Koreans and Pictured Koreans* (ed. by Andreas Schirmer and Frank Hoffmann), Wien: Praesens.
- Horthy Miklós (2011), *Emlékirataim*, Budapest: Európa Könyvkiadó.
- Horusitzky Zoltán (ed.) (1941a), *A Zene XXII. évf. 5 sz.*, Budapest: Hollóssy János könyvnyomtató.
- Horusitzky Zoltán (ed.) (1941b), *A Zene XXII. évf. 13 sz.*, Budapest: Hollóssy János könyvnyomtató.
- Horusitzky Zoltán (ed.) (1941c), *A Zene XXIII. évf. 3 sz.*, Budapest: Hollóssy János könyvnyomtató.
- Horváth László (2011), "Szimfonikus felfedezések. Veress Sandor: Prima Sinfonia," *Zenekar 3*, Magyar Szimfonikus Zenekarok Szövetsége.
- Horváth László, Kádár Gyöngyvér (ed.) (2013), *ECCE, Eötvös Collegium-Collegium Értesítő II. (2011/2012)*, Budapest: ELTE Eötvös József Collegium.
- Lencsés Gyula (2013), "A terepmunkától a művészi alkotásig: Veress Sándor és Dudar," *Múlt és jelen: Szegedi társadalomkutatók dudaron 1937-2012* (ed. Lencsés Gyula, Feleky Gábor), Szeged: Belvedere.
- Markó Veronika (2011), "Szabó Miklós," *Lustrum*, (ed. by László Horváth, Krisztina Laczkó, Károly Tóth), Budapest: Typotex Kiadó–Eötvös Collegium.
- Tallián Tibor (2014), *Magyar képek: Fejezetek a magyar zeneélet és zeneszerzés történetéből 1940–1956*, Budapest: Balassi Kiadó.

ABSTRACT

A Study on Eak-tai Ahn (VI)

Kim, Bogook*

The Concert on the 10th of October,
1941 and Its Criticism

This study concerns the materials related from December 1940, when Ahn Eak-tai left the Ötvösch boarding school, to October 10, 1941, when there was a concert in Bigedo, Budapest. Contrary to what has been known thus far, this study claims that Ahn Eak-tai's first encounter with Koichi Ehara was when he visited Romania in November 1940 for a performance, based on the performance program recorded at the time. Therefore, Ehara said in her writing that Ahn Eak-tai stayed in Europe and sought him to continue his studies, which was in December 1940, when Ahn Eak-tai had no choice but to leave the Báró Eötvös József-Collegium. The reason this point is important is because the point at which Ahn Eak-tai stayed in Ehara's mansion and the point where his career as a conductor rose splendidly overlap. On October 10, 1941, he first stood on the conducting stage, which was different from the previous conducting stage and was more formal in form and content. Starting with this concert, Ahn Eak-tai's musical career reached its peak for about two years, focusing on activities in Germany. In this research, we took a closer look at this

* Chief Researcher, AEAS, Sungkyunkwan University
Director, East Asian Research Center, National Archives of Hungary

October 10th concert through data from Hungarian sources. And the harsh criticism that was published in some newspapers and music journals at the time was ultimately attributed to his inability to conduct in Hungary.

Keywords Ahn Eak-tai, Ekitai Ahn, Liszt Ferenc Academy of Music, Ehara Koich, Etenraku, Hisatada Otaka, Hidemaro Konoye, Celebrating Music for the Commemoration of the 2600th Anniversary of the Japanese Imperial Era, Veress Sándor